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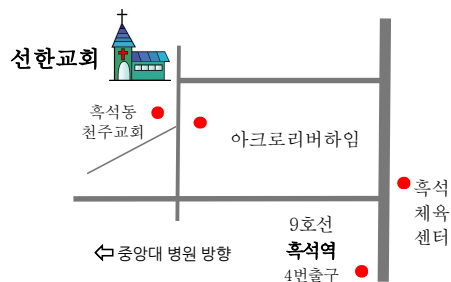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2부 주일 오전	11:00	오전 11:00	요 셉 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오전 11: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1: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오전 11: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오전 11: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안 나 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교 육 목 사 정 용 준	협 력 교 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 동 목 사 홍 진 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회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 희 태, 유 신 웅		
	조 윤 익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윤 호 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편 도 선, 이 태 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엡 5:10)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실 천 사 항 영의 일을 생각하기 기쁨으로 섬기기 복음 전하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 15:18)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일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1부	2부	
기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32장 (통일찬송가 48장)			
교독문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찬양과경배	407장 (통일찬송가 465장)			
기도	다 함께		편도선 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15장 12절, 17~18절			
설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언약 (박정근 목사)			
헌금	여호수아회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주가 일하시네			
축도	박정근 목사		박정근 목사	
성도의교제	다 함께			

주일
오후

셀가족모임

수요예배	오후 7:30	인도: 임춘배 목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 1~7절)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안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루디아회입니다.

4) 주차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셀가족모임

오늘 오후 예배는 셀가족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3. 제직회

다음 주일(6일) 2부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4. 월삭새벽예배

4월 1일(화) 오전 5시 30분 월삭새벽예배 (주관: 과천/강북)

총동원금요기도회 4월 4일(금) 오후 8시 30분 총동원금요기도회 (주관: 여호수아/루디아)
5. 떡제공

최영석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찬송 :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통502)

본문 : 요한계시록 8장 12~13절

말씀 : 네 번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었습니다.(계 8:12) 이 사건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고대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신성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운명을 점치고 국가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초월적 존재들을 흔들어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선포하십니다.

첫째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돈, 지식,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강대국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며 과학과 기술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해와 달과 별처럼 영원할 것 같던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시 146:3~5)

둘째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에서 해와 달과 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 전에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벧후 3:9)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한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건강의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출 10:22~23) 오늘날도 세상은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적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질 때,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사 26:3)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 목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언약 (창 15:12,17~18)

서 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 본 론
1.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 (1) 조카 롯을 구한 후 찾아온 의문: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1-3절)
 - (2) 하나님의 대답: ①(씨 약속)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4-6절) ②(땅 약속)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7절) ③(아브라함의 확증 요청)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8절)
 - (3)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 ①'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암염소와 삼년된 숫양을 가져올지니라'(9절) ②'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10절) ③'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12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17절)
 - (4) 이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 이었다.
 2. 우리와 맺은 언약
 - (1)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막14:24)
 - (2) 이 언약에 성부 하나님이 목숨을 거셨고, 성자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친히 담보가 되심(엡1:13,14).
 - (3)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임
 - (4) 비록 내 삶이 내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기도한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 해도 성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확증하시고 보증하신 이 언약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는가!

결 론 하나님과 맺은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편도선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안현미, 이소영 집사	안혜진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심지숙 집사
주 방 봉 사	루디아회	청소년부/청년부

매일 Q.T.		중심으로 드린 예물, 응답하시는 하나님	날짜 : 3월 31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본문	민수기 7:10~89		
말씀요약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지휘관들이 제단에 하루 한 사람씩 봉헌물을 드립니다. 열두 지파가 드린 헌물은, 지파마다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운 은반 하나와 은바리 하나, 향을 채운 금그릇 하나,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등입니다. 회막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질문 1	12일간 드린 헌물 7:10~83 열두 지휘관이 12일간 동일한 예물을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 자신 또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봉헌 예물의 총계 7:84~89 제단 봉헌물을 다 드린 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즐거이 드리며 헌신하는 내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한절묵상	민수기 7장 11~12절 지도자는 앞장서서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단 봉헌식에서 열두 지파 대표가 봉헌물을 드립니다. 봉헌물을 드리는 순서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야곱의 유언과 축복을 따라(창 49:8~12)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믿음과 성령으로 채운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간직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신속히 “예”라고 반응하며 달려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저의 작은 수고와 헌신도 귀하게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사랑에 감격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 누군가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개인 성경 공부 “구별된 레위인의 헌신”	
찬양과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 425)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묵상 나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받으면 키워 주신 부모님에게 그대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첫 월급봉투를 건네며 “지금까지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봉투를 받은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거나 혹은 “네가 더 필요할 텐데 어찌 이걸 다 주느냐”라며 되돌려 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가 더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계는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에 응답함으로써 더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첫 열매와 삶을 드리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응답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나누기	민수기 8:14~26
묵상포인트	본문은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해 하나님께 봉사자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14~19절).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러졌으나 살아 있는 제물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회막에서 봉사했습니다. 레위인은 정치적·문화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회막과 성전 봉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과 문화의 중심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3:13)는 표현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레위인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제사장 직분의 전조이자 예표로 이해됩니다. 레위인의 구별됨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히 7:23~25). 나아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이라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레위인의 역할과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신앙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관찰과묵상	가정과 일터 등 공동체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여길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적용하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구별해 적재적소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라고 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자신의 삶과 내면을 정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저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기도	

매일 Q.T.		순종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날짜 : 4월 4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본문	민수기 9:15~23		
말씀요약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나타나 아침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것에 진을 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묵상질문 1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9:15~18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행진을 인도하셨나요? 나는 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나요?		
묵상질문 2	하나님 명령에 따른 기다림과 행진 9:19~23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항상 주시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 내가 주시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민수기 9장 17~18절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구름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전진과 멈춤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는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길도 기쁘게 걸어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저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저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를 수 있는 인내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소서.		

매일 Q.T.		빛을 비추는 삶, 거룩한 부르심	날짜 : 4월 1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본문	민수기 8:1~13		
말씀요약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은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켜야 합니다. 모세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론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레위인은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 속죄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등잔을 놓는 방식 8:1~4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향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 속에서 나는 복음의 빛을 어느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출 수 있나요?		
묵상질문 2	레위인 정결식 8:5~13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레위인은 어떤 의식과 절차를 거쳤나요? 하나님 일에 헌신하기 위해 나는 어떤 준비가 먼저 필요할까요?		
한절묵상	민수기 8장 2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고, 겉은 여러 겹으로 덮여 있어서 그 내부는 완전히 어둡습니다. 등잔대의 등불이 성막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성소는 등잔대의 빛으로 충만하고, 대제사장은 그 빛을 의지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 안으로 이끄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어두운 곳에 참된 빛을 비출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구별된 자로서 제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드러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정결함을 갖춰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충성을 다할 기한이 있는 섬김	날짜 : 4월 2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본문	민수기 8:14~26		
말씀요약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는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 집니다. 그들은 정결하게 된 후 회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합니다. 레위인은 25세가 되면 회막 봉사를 시작하고, 50세가 되면 봉사를 쉬어야 합니다. 50세부터는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상질문 1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인 8:14~19 레위인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나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섬길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레위인의 봉사와 은퇴 8:20~26 레위인이 봉사 기간을 마친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내게 주어진 역할을 마친 후에 나는 공동체를 위해 어느 영역에서 조력하고 싶나요?		
한절묵상	민수기 8장 16~17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출 19:5; 레 20:26). 그들 모두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인의 섬김을 이스라엘의 섬김으로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로 인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생계를 돌보는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길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 통로의 역할, 봉사하는 삶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제게 맡겨 주신 모든 일에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소서.		

매일 Q.T.		엄중한 명령, 그러나 유연한 이고심	날짜 : 4월 3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본문	민수기 9:1~14		
말씀요약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다음 해 첫째 달 열넷째 날에 하나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하고 있는 사람은 둘째 달 열넷째 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유가 없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유월절 준수 9:1~5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내가 주기적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규례 9:6~14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언제 유월절을 지켰나요? 내가 유연함과 포용성을 보일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민수기 9장 10~11절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본래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지켰는데, 부득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반드시 지키게 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넘어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죄의 종노릇을 하던 저에게 완전한 구원과 참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삶의 문제를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 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 아뢰며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소서.		